

●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계

우리의 몸, 나뭇잎, 물방울, 심지어 작은 동물의 솜털이라도
깨끗한 마음으로 존재 자체에 집중한다면
그곳에 깃들어 있는 불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.